소속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성함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의 출판사는 어디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한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강원지부	뒤뚜르도서관	이순애	향모를 땋으며	에이도스	로빈 월 키머러	인디언부족 출신의 과학자 키머러는 자연에 대해 깊은 존경과 애정을 나타내며 대지를 사랑한다고 단언하는 우리에게 묻는다. "대지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나요?"
경기북부지부	강촌공원작은도서관	조혜영	평균 연령 60세 사와무라 씨 댁의 이런 하루	이봄	마스다 미리	앞으로 더 많아지게 될 가족의 형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경기북부지부	고양 작은도서관	심은경	(방정환 수필 모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어린이	산하	염희경	자기가 심고, 자기가 길러서, 자기가 피워 놓은 아름다운 꽃의 향내를 맡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경기북부지부	동양작은도서관	박연주	아주 작은 씨앗	시공주니어	에릭 칼	그 중에는 아주 작은 씨앗도 있습니다.
경기북부지부	마상공원작은도서관	김은미	쓰는 사람, 이은정	포르체	이은정	쓰는 사람이어서 행복했다
경기북부지부	모당공원작은도서관	김희정	반 고흐를 읽다	레드박스	빈센트 반 고흐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의 허위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뇌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병적인 밀폐감과 숨 막히는 압박감을 냄새 맡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다.
경기북부지부	비전도서관	박다은	마음도 번역되나요	시공사	엘라 프랜시스 샌더스	완벽히 번역해낼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다양한 언어를 접할수 있는 책
경기북부지부	예다움작은도서관	백정희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	한겨레출판	김보통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놓친 것일까. 알아채지도 못한 채 사라져버린 기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경기북부지부	재미있는느티나무온가족도서관	이승희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동녘	J.M 바스콘셀로스	커가면서 네가 속으로 말하고 보는 것들을 '생각'이라고 해.
경기북부지부	화전작은도서관	황보미	내마음 ㅅㅅㅎ	사계절	김지영	소리내어 낭독하면 제 마음도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요
경상지부	마하어린이도서관	손명진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더숲	시애틀 추장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짐승에게 일어나는 일은 똑같이 인간에게도 일어난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본 연어 떼의 반짝이는 춤을 나의 부족은 잊지 못할 것이다 (P. 66) 인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대지가 건강하고 치유의 힘을 갖게 되기를, 내 위에 아름다움이 있기를, 내 아래에 아름다움이 있기를, 내 안에 아름다움이 있기를, 내 둘레에 아름다움이 있기를. 세상이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P. 204) 매주 목요일 10시가 되면, 마하어린이도서관에는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혼자서는 읽기 어렵고 두꺼운 인디언 연설문집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을 '낭독의 용기' 동아리에서 함께 소리내어 읽고 있어요. 낭독을 하는 동안에는 인디언 추장이 되고, 대지의 정령이 되며, 낭독 후 느낌을 나눌 때는 푸른 별, 우리 지구를 위하는 자연환경 지킴이가 된답니다.
광주지부	책돌이도서관	오선진	너, 정말 이러기야?	비룡소	러셀 호번 릴리언 호번	대화 글이 많아 읽어주면 아이가 좋아합니다
광주지부	책돌이도서관	신화숙	민들레는 민들레	이야기꽃	김장성 글/ 오현경 그림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모습을 하든 나는 나
대구지부	마을도서관햇빛따라	이옥희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어크로스	에릭 와이너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철학에 대해 가르친다. 학생들에게 철학적으로 사색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철학은 다른 과목과는 다르다. 철학은 지식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사고방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다. 무엇을'이나 '왜'가 아니라 '어떻게'다
대구지부	해봄작은도서관	이수미	지도밖으로 행군하라	푸른숲	한비야	"감자꽃이다!" 아, 세상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까지, 아득히 내 눈길이 닿는 데까지, 벌판 가득 감자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수만 ,수십만, 아니 수백만 송이의 하얀 감자꽃! 송이송이 함박눈이 들판 가득히 내려 쌓인 것 같았다 .파란 이파리와 푸른 방풍림을 배경으로 핀 하얀 감자꽃들이 등불 인 양 환하다. 산들바람이 불면 일제히 찰랑, 몸을 흔드는 감자꽃. 마치 귀여운 여동생이 '이제 오세요?' 하는 것 같다 . 아, 저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으며, 얼마나 간절히 기도 했을까? 이런 꽃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조그마한 물방울들은 모여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여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을까. ~ 위의 문장은 논이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이 식량난에 시달릴때 차선책으로 남쪽의 긴급구호단체에서는 북한의농업과학원과 손잡고 1년에 이모작을 할수있는 씨감자 생산에 물자와 기술을대고 북쪽농업과학원에서는인력과 노동력을대고 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서는 필요한 행정업무를 진행 하면서 힘을 합친 결과 대홍단감자밭을 현장 답사한 체험기이다.
서울지부	개인회원	김현실	나의 작은 아빠	봄볕	다비드 칼리 지음, 장 줄	아빠는 더 이상 작아지지는 않아요. 이미 아주아주 작지만요. 아빠의 기억과 능력은 아빠으 몸만큼이나 조그맣게 줄어들었어요. 다시 어린아이가 된 거죠.
서울지부	은행나무어린이 도서관	박진선	어린이라는 세계	사계절	김소영	어린이의 품위를 지켜주는 품위있는 어른의 이야기이다.작가님처럼은 어렵겠지만 우리 곁에,우리 안에,세상 속에 자라나는 어린이를 만나게 되면 더할 나위없이 반갑게 대하고 품위 있게 대하도록 노력해보려구요
서울지부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만두엄마	달팽이학교	바우솔	이정록	시라서 낭독할때 즐겁고 유쾌함.
서울지부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양정아	시로	위즈덤하우스	하상욱	니가 뭘하든 난 상관 없어. 뭘 하든 널 응원할 거니까. 헤매고 있어도. 해내지 못해도.
서울지부	은행나무어린이작은도서관	정은환	어린왕자	모름	생택쥐베리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는 건 그 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그 시간이란다.
서울지부	작은도서관 웃는책	조영아	낭송 열하일기	북드라망	박지원	우물 안 선비 박지원은 생애 처음 조선 땅을 넘어 중원 땅을 밟는 긴 여정을 시작한다. 대장정을 떠나는 연암의 행장은 단출하기 짝이 없다. 먹과 벼루와 공책이 전부다. 연암과 그 깨알 같은 중원대륙의 모습 하나하나가 [열하일기]를 통해 매우 진기하고 발랄하게 재탄생하였다. 낭독하며 여러분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울산경주지부	울산 작은도서관 업무지원단	류소영	시를 잊은 그대에게	휴머니스트	정재찬	발간된 지 좀 됐지만 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져 낭독하기 좋습니다.
울산경주지부	하랑작은도서관	배수경	알로하, 나의 엄마들	창비	이금이	운명에 순응하는것이 아니라 개척하는 삶을 엿 볼 수 있다. 마치 나의 삶처럼...
인천지부	짱뚱이도서관	심혜경	생텍쥐베리의 문장들	마음산책	앙뚜앙드생텍쥐베리	삶에는 해결책이 없네. 나아가는 힘만 있을 뿐이야. 그 힘을 만들어내야 해결책이 뒤따라오는 것이네
충청지부	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	김은정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국민출판	필립 체스터필드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로 쓰인 책이다. 시간 관리방법, 사람을 대하는 법, 열중하는 법, 지식 쌓는 법, 사고하는 법, 인간관계를 맺는 비결, 자기 자신을 표한 하는 법 등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것들을 소리내어 읽어 보면 좋다.
충청지부	기9단지 달빛도서관(세종시도서관 연	이주희	가만가만 사랑해야지 이 작은 것들	삼인	이철수	작가는 판화가이다,그림으로 시를 쓴다는 느낌을 받을수 있다.그림과 시를 동시에 묵상하는 낭독하기는 아주좋은 책이다.잠못드는밤,별자리,배고픈 우체통 등등 생각에 빠지게 한다
충청지부	기9단지 달빛도서관(세종시도서관연	이주희	고래별.경성의 인어공주	알에이치코리아	나윤희 글그림	인어공주 모티브의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역사속의 일반 민중의 이야기.나라를 빼앗겼지만 실제 서민들에게는 나라잃은 아픔이 어떤의미였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하는 애뜻한 러브스토리
충청지부	한울작은도서관	최수현	자전거도둑	다림	박완서	순수한 소년의 눈을 통해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작품입니다. 함께 읽기 좋은 주제와 문장의 아름다움이 있는 책입니다. ^^
호남지부	하늘을나는도서관	노소희	시치미를 떼듯 생을 사랑하는 당신에게	길벗어린이	고정순	남부럽지 않을만큼 불행을 겪어왔지만, 모든 순간이 나의 뮤즈였다